<h1>나 혼자만 레벨업-19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b133a858640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9화.</p>  
<p>벌레들이 무섭게 물어뜯고 있는 와중에도 황동석은 일체의 흐트러짐 없이 반격의 순간을 기다렸다.</p>  
<p>딜러들이 극딜을 퍼부어도 어글이 튀지 않게 될 때를.</p>  
<p>'이쯤 하면 됐다!'</p>  
<p>이제부터 진짜 사냥의 시작이다.</p>  
<p>헌터들이 헌터라 불리는 이유!</p>  
<p>황동석이 외쳤다.</p>  
<p>"딜!"</p>  
<p>짧고 굵은 고성과 함께 팀의 모든 화력이 벌레들에게 쏟아졌다.</p>  
<p>키이이이엑-</p>  
<p>키에엑-</p>  
<p>여기저기서 마수들의 괴성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진우는 뒤쪽에 서서 일행들의 전투를 지켜보았다.</p>  
<p>그게 이번 레이드의 계약 조건이었다.</p>  
<p>그들의 전투를 보며 자신이라면 어떻게 싸울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다.</p>  
<p>'답답하다.'</p>  
<p>진우는 몇 번이고 튀어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.</p>  
<p>마수들의 빈틈이 너무 많이 보였다.</p>  
<p>또 그런 빈틈들을 놓치는 헌터들의 실수도 빈번하게 보였다.</p>  
<p>그런데도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.</p>  
<p>그러나 황동석 팀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었다.</p>  
<p>팀원들의 손발이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 주었던 황동석의 여유가 완전히 허세는 아닌 듯했다.</p>  
<p>"진석아, 11시!"</p>  
<p>"형, 오른쪽에서도 오는데요?"</p>  
<p>"준태, 석민, 규환! 오른쪽은 너네가 맡어."</p>  
<p>"예!"</p>  
<p>"철진, 너 손목 부었네. 일단 뒤로 빠져 있어라."</p>  
<p>"황 형, 이 정돈 괜찮슴다."</p>  
<p>"입구만 청소하고 돌아갈래?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 마. 페이스 조절해라."</p>  
<p>"알았슴다."</p>  
<p>오래 호흡을 맞춰 왔는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했다.</p>  
<p>원활한 소통은 좋은 팀플을 만들어낸다.</p>  
<p>오합지졸 협회의 헌터들과는 달랐다.</p>  
<p>'의외로 저것도 좀 하고.'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유진호에게로 옮겨갔다.</p>  
<p>마수 하나가 턱으로 방패를 물어뜯자, 발로 걷어차 마수를 밀어내고 검을 휘둘렀다.</p>  
<p>비싼 검은 마수의 머리를 뎅겅 잘라냈다.</p>  
<p>초짜 D급 헌터 주제에 선방하고 있었다.</p>  
<p>'모자란 실력이나 경험이 장비빨로 커버되네.'</p>  
<p>헌터들이 괜히 좋은 장비를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와 눈이 마주친 유진호가 엄지를 척 올렸다.</p>  
<p>"..."</p>  
<p>하도 눈빛이 간절해 보여서 진우도 하는 수 없이 엄지를 들어 올려 주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만족스러운 듯 돌아섰다.</p>  
<p>끼이이엑-</p>  
<p>어쨌거나 치열했던 전투도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었다.</p>  
<p>대충 주변이 정리되자 황동석이 동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다.</p>  
<p>"마정석 전부 챙겨! 정확히 9등분한다."</p>  
<p>"옙."</p>  
<p>"난 이때가 제일 좋더라."</p>  
<p>"미 투."</p>  
<p>동생들의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황동석은 진우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"아이고, 덕분에 살았습니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"처음에 마수들이 위에서 온다고 말한 거 성진우 씨잖아요. 그거 어떻게 안 겁니까?"</p>  
<p>"감... 이죠."</p>  
<p>진우는 대충 둘러댔다.</p>  
<p>감각 스탯이 높아서, 라고는 할 수 없었다.</p>  
<p>"아, 그래요? 감이라... 운이 정말 좋았네요. 그렇게라도 발견 못 했으면 어찌 됐을지, 휴우-."</p>  
<p>황동석은 그렇게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.</p>  
<p>벌레들을 뒤지던 헌터 하나가 황동석에게 손짓했다.</p>  
<p>"황 형, 여기 좀 와 봐요."</p>  
<p>동생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.</p>  
<p>황동석도 그리로 향했다.</p>  
<p>"응?"</p>  
<p>"얘네들 좀 이상한 데요?"</p>  
<p>황동석이 도착하자 헌터들이 길을 터 주었다.</p>  
<p>황동석은 쭈그려 앉아 주변을 둘러 보았다.</p>  
<p>딱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어디를 봐도 그냥 죽은 벌레들뿐이었다.</p>  
<p>"뭐가 이상하다는 거야?"</p>  
<p>황동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동생 중 하나가 가까이 있던 벌레의 다리를 가리켰다.</p>  
<p>"저거 우리한테 당한 상처 아니지 않아요?"</p>  
<p>"..."</p>  
<p>황동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.</p>  
<p>유심히 살펴보던 그가 말했다.</p>  
<p>"뭔가에... 물어뜯긴 거 같은데?"</p>  
<p>"그쵸? 이런 상처가 있는 놈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. 보세요, 여기도. 또 저기도. 쟤는 아예 날개 한 짝이 다 뜯겼네. 얘네들 우리랑 싸우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였던 거 아니에요?"</p>  
<p>황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어쩐지 마수들 머릿수가 많은 거치곤 전투가 쉽다 했다.</p>  
<p>"설마 이것들... 다른 놈들과 싸우고 있었나?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아주 잠시지만 진우는 황동석과 몇몇 멤버들의 시선이 자신 쪽으로 향한 것을 느꼈다.</p>  
<p>진우가 의식하자 그들은 금방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그걸 보고 진우는 확신했다.</p>  
<p>'역시...'</p>  
<p>처음의 짐작이 맞았다.</p>  
<p>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것은 저들끼리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다는 뜻이다.</p>  
<p>그것도 희생자 없이.</p>  
<p>하지만 힐러 없이 그게 가능할까?</p>  
<p>아무리 유능한 헌터들이라도 사람인 이상 실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. 당장 조금 전만 해도 벌레들의 공격에 진형이 어그러질 뻔했지 않은가.</p>  
<p>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다.</p>  
<p>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'어쩌면... 이용해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'</p>  
<p>예상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말이다.</p>  
<p>황동석이 웃으면서 일어났다.</p>  
<p>"자자,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. 이런 식이면 금방 클리어할 수 있겠네요."</p>  
<p>황동석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동생들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.</p>  
<p>팀의 기존 멤버들은 전부 황동석 주위에 있었으니.</p>  
<p>그사이 유진호가 활짝 웃으며 근처로 다가왔다.</p>  
<p>"형, 봤어요? 저 보셨죠? 제가 이걸로 마수들을 아주 그냥."</p>  
<p>유진호는 검을 쥐고 허공에 붕붕 휘둘러 댔다.</p>  
<p>진우가 물었다.</p>  
<p>"너, 그 칼하고 방패 비싼 거지?"</p>  
<p>"예? 아, 첫 레이드 간다니까 아버지께서 신경 좀 써 주셨죠."</p>  
<p>"그럼 너도 조심해야겠다."</p>  
<p>진우는 유진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줬다.</p>  
<p>그러고는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헌터들을 뒤따라갔다.</p>  
<p>"갑자기 뭔 소리래?"</p>  
<p>고개를 갸웃거리던 유진호도 곧 일행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동굴은 한참 안으로 이어졌다.</p>  
<p>그런데 가는 도중 마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외길 던전이니 마주치지 못한 것은 아닐 텐데.</p>  
<p>"입구에 있던 놈들이 전부였나?"</p>  
<p>"에이, 설마."</p>  
<p>"참 별일이긴 하네."</p>  
<p>"그래도 보스는 있겠지?"</p>  
<p>"보스가 없는데 게이트가 열려 있겠냐."</p>  
<p>크기는 큰데 텅 비어 있는 던전 내부에 헌터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.</p>  
<p>"잠깐."</p>  
<p>황동석이 멈춰 섰다.</p>  
<p>급히 멈추는 바람에 약간의 충돌이 발생했다.</p>  
<p>앞사람의 뒤통수에 코를 부딪친 헌터가 울상을 하곤 물었다.</p>  
<p>"아이 씨- 황 형, 뭐예요?"</p>  
<p>"규환아, 여기 비춰 봐."</p>  
<p>조규환이 정면에 띄워 놨던 빛의 공을 움직여 황동석이 가리키는 구석 쪽을 밝혔다.</p>  
<p>"맙소사..."</p>  
<p>"이게 다?"</p>  
<p>헌터들이 나직이 신음했다.</p>  
<p>벌레들의 날개, 다리, 몸통, 심지어 머리까지.</p>  
<p>죽은 벌레들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.</p>  
<p>잔해는 동굴 안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졌다.</p>  
<p>그 끝에 위치한 커다란 방.</p>  
<p>"보스 방이다."</p>  
<p>누군가가 중얼거렸다.</p>  
<p>황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다들 장비 꺼내."</p>  
<p>헌터들이 곧바로 무장을 갖추었다.</p>  
<p>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았다.</p>  
<p>살금살금.</p>  
<p>대장인 황동석을 필두로 나머지 헌터들이 조심스럽게 보스 방으로 진입했다.</p>  
<p>하지만 정적도 잠시.</p>  
<p>"대, 대박이다!"</p>  
<p>코가 시뻘건 헌터가 소리쳤다.</p>  
<p>아까 남의 뒤통수에 코를 박았던 자였다.</p>  
<p>원래 던전 안에서 큰 소리는 절대 금기다.</p>  
<p>마주치지 않아도 될 마수가 소리를 듣고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.</p>  
<p>하지만 빨간 코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다.</p>  
<p>"우와-."</p>  
<p>"이게 다 얼마야?"</p>  
<p>"대박인데?"</p>  
<p>다들 감탄하기에 바빴다.</p>  
<p>"홀드."</p>  
<p>조규환이 빛의 공을 높은 공중에 고정시키자 방의 형태가 확실하게 드러났다.</p>  
<p>동굴 벽면에 솟아 있는 보석 같은 돌들.</p>  
<p>"마나석이다!"</p>  
<p>"한쪽 벽면 전체에 마나석이!"</p>  
<p>불빛을 반사하는 마나석보다 헌터들의 눈이 더 반짝거렸다.</p>  
<p>마나석!</p>  
<p>던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 중 하나였다.</p>  
<p>마수들의 몸에 들어 있는 마정석보다는 마력이 적지만 보통 대량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었다.</p>  
<p>특히 이번에 발견한 마나석 덩어리들은 그 양이 장난 아니었다.</p>  
<p>커다란 동굴 한쪽 벽면을 한가득 채우고 있었으니 말이다.</p>  
<p>"대충 계산해 보니까."</p>  
<p>계산에 밝은 한 명이 손가락을 분주하게 움직였다.</p>  
<p>"전부 다 캐면 10억 넘게 나오겠는데? 9등분해도 각자 1억 이상씩은 챙기겠어."</p>  
<p>오오-</p>  
<p>헌터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갔다.</p>  
<p>뒤에 빠져 있던 유진호가 그 소리를 듣고 진우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찔렀다.</p>  
<p>"형, 계약서 좀 줘 봐요!"</p>  
<p>"계약서는 왜?"</p>  
<p>"믿고 줘 봐요. 제가 법 쪽으로는 빠삭하거든요."</p>  
<p>진우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넘겨주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그걸 들고 황동석에게로 갔다.</p>  
<p>"잠깐 선배님들,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."</p>  
<p>기뻐하던 헌터들의 시선이 일순간 유진호에게로 쏠렸다.</p>  
<p>유진호는 진우의 계약서를 펼쳐 보여 줬다.</p>  
<p>"대장님, 이게 진우 형 계약서인데요. 보시다시피 사냥을 통해 나오는 마정석 말고는 분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."</p>  
<p>다들 유진호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챘다.</p>  
<p>-던전에서 나온 보물이나 희귀품은 멤버 수대로 골고루 나누는 것이 관례다. 자기가 잡은 마수의 마정석만 챙겨야 하는 사냥과는 분배 방식이 다르다.</p>  
<p>즉 마나석은 9등분이 아니라 10등분을 해야 한다는 것.</p>  
<p>순간 헌터들의 눈빛이 달라졌으나, 황동석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.</p>  
<p>"물론 공평하게 나눠야죠. 잘 알고 있습니다. 그전에 처리할 것도 있고요."</p>  
<p>황동석이 검지를 뻗어 앞을 가리켰다.</p>  
<p>유진호가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자신을 가리키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움찔하며 돌아보니 뒤편 구석 멀리에 집채만 한 거미가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.</p>  
<p>"헉...!"</p>  
<p>유진호는 거미의 위용을 보고 뒷걸음질 치며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.</p>  
<p>잠들어 있는지 거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놈의 주위에는 벌레들의 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.</p>  
<p>먹다 만 껍데기도 많고, 타액이 섞여 있어 엎어진 음식물 쓰레기통을 연상시켰다.</p>  
<p>"보스구만."</p>  
<p>"저게 던전의 벌레들을 먹어 치운 건가?"</p>  
<p>"많이도 처먹었네."</p>  
<p>헌터들이 거미를 보고 한마디씩 던졌다.</p>  
<p>황동석이 헌터들을 불러 모았다.</p>  
<p>진우와 유진호도 황동석 앞에 섰다.</p>  
<p>"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스를 잡으면 게이트가 닫힙니다. 그러니 거미를 잡기 전에 먼저 마나석부터 캐서 옮겨 두죠."</p>  
<p>다들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황동석의 시선이 빡빡머리에게 옮겨갔다.</p>  
<p>"철진아, 장비는 챙겨 왔냐?"</p>  
<p>이철진이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아뇨. C급 던전에서 마나석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채굴 장비는 다 차에 두고 왔슴다."</p>  
<p>"인석아... 평소에 좀 잘 챙겨 두라고 형이 말 안 하든?"</p>  
<p>"죄송함다, 죄송함다. 정말 죄송하게 됐슴다."</p>  
<p>이철진은 씩 웃으며 황동석과 팀원들, 그리고 진우에게까지 꾸벅 사과했다.</p>  
<p>황동석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.</p>  
<p>"아이고, 이거 귀찮게 됐네. 그럼 두 분이 여기 좀 지켜 주세요. 저희는 가서 장비 좀 챙겨 오겠습니다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